

“타지역 신병 수료식? 안될말”

35사단 '순창 개척'로 임실군의회·상인회 등 항의 방문... 부사단장 “절차미흡 사과”

임실에 위치한 제35보병사단이 오는 11월 7일 개최되는 신병수료식을 임실이 아닌 인근 순창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지자 임실군의회를 비롯 임실상인회 등 각 사회단체가 35사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실 35사단은 지난 2013년 12월에 전주시 송천동에서 임실을 대국리로 이전해왔다. 이전과정에서 낮은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아픔을 겪어왔다.

35사단 김대식 부사단장은 “이번 수료식 결정은 순창군에서 사단과 전혀 교류 할 기회가 없다며 지자체장이

정식 교류 요청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이와 함께 수료식때 장병들의 왕복 이동수단 제공과 음식 값 할인 등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했음을 밝혔다.

임실시장상인회 백기용 회장도 “임실에 주둔해 있는 35사단이 임실군도 모르게 순창군과 이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며 “임실군도 장병들과 면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서비스 향상 노력과 골목시장 육성 등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의 수료식은 절대 안된다.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신대용 의장은 “사단이 임실로 오기까지 지역민의 험난한 여정과 고통이

따랐음을 상기 시키고, 아직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며 “35사단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했다. 먼저 임실군과 상인협회 등 기관단체와 상의해야 한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식 부사단장은 “지역과 대립각을 세우는 안된다”며 “이번 순창군 행사 유치는 절차가 미흡했음을 사과한다. 사단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임실시장상인회 및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유소년 야구대회 중심지로

올해까지 2회 열여... 총 3500여명 참여 지역경제에 보탬

순창군이 유소년 야구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 2회 개최하면서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로서 명성을 떨쳤다. 지난 9월 전국단위 유소년 야구대회인 제2회 순창 강천산배 야구대회를 개최해 80여개팀 1,5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2월에 열린 제3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는 90여개팀 2,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됐다.

순창군은 2016년에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처음 개최한 이래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도 전국단위 유소년 야구대회를 2회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유소년 야구단도 창단했다. 유소년 야구는 전국에 선수층이 두꺼워 선수단의 참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리그 기간 동안 함께 지역에서 머물며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순창군은 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일대에 야구장 1개소와 축구·야구 전용구장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개최된 2개 야구대회는 임실 야구장까지 빌려 야구대회를 추진했으나 2개 구장이 완공되는 내년부터는 순창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30여회 이상 유치하는 등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이 스포츠마케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민선 7기 조직 새롭게 개편

본청 2국 2실 13과 72팀·직소기관 4과 19팀

임실군이 민선 7기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첫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군정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 인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춘 업무분장과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조직개편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속히 정리해서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업무분장과 인수인계를 신속히 마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반기 군정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기능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팀은 통폐합 하는 한편 신규 행정 수요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새롭게 신설했다.

당초 1실 11과 66팀인 본청은 2국 2실 13과 72팀으로, 직소기관은 4과 21팀에서 4과 19팀으로, 사업소는 2사업소 9팀에서 1사업소 5팀으로 각각 변

경됐다.

지역복지국과 농촌산업국을 신설, 분산돼 있는 과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2국장 체제를 만들었다. 간부회의에서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분예산 편성은 물론 내년도 신규사업과 국가예산 확보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심 군수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막바지 영농지도에 힘쓰고,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 정도는 알아야 남원사람’

남원 문화관광 상식고시 ‘주목’

남원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22일 10월중 월례회의를 마친 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동장 등 간부 60여명을 대상으로 남원문화관광 상식고시를 실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상식고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남원사람’이라는 주제로 남원의 인문환경, 전란사, 춘향전, 흥부전, 혼불, 국악 등 남원을 대표하는 6개 분야의 콘텐츠에 대해 묻는 60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은 삼국시대 남원은 어느 지역에 속 했는가, 춘향과 몽룡이 만난 날은 언제일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전쟁 중 외국을 떠돌면서 겪은 남원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조위환이 쓴 한문 소설은 등의 문제로 실시되었다.

함께 시험을 치른 이환주 시장은 “시험문제가 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었다”며, “실과소 읍면동 전 공무원에게 시험을 확대하고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학교에도 시험지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관광과에서는 상식고시 시험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에 문제지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는 남원의 스토리 텔링 57선 책자를 제공해 시민들이 지역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며, 시험을 원하는 개별시민에게 남원시청 입구에 안내실에서 문제지를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기마대와 함께 범죄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순창고추장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장류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경찰기마대와 함께 통합홍보를 실시하였다.

이 날 통합 홍보는 전라북도 경찰청 경찰기마대와 함께 성범죄 없는 순창,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 전화금융사기 없는 순창 그리고 사이버범죄

예방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홍보하였다.

김태형 서장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 또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가임 압 염소 도태 장려금 신청

남원시는 염소 사육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염소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가임 압 염소 도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압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압 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되며, 농가의 신청수요가 저조할 경우 1년 미만 압염소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농가가 직접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는 11월 중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이 확정된 농가는 도태 예정 완료일까지 도축장을 통해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압 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어져 경영난이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임실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시민들의 인식 및 수요기관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임실군 전체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4.56%(2018년 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군은 읍면 인감담당자 및 인허가 부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등기소·금융기관 등 인감증명 제출요구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장해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